

프로필



김만기 도 총무행정관

김만기(53) 도 총무행정관은 “원칙에 입각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학습하는 조직 만들기, 시·군과의 협력과 소통 강화에 힘쓰겠다”고 강조. 정선 출신. 강원고를 졸업. 국제협력실 국제협력 담당,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미디어부장·홍보부장·청산부장, 관광마케팅팀장,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레고랜드추진단장, 기획관 등을 역임. 가족은 부인 전영숙씨와 1남.



김보현 도 기획관

김보현(58) 도 기획관은 “강원도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지역의 이익과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약속. 영월 출신. 영월공고를 졸업. 기업유치정책담당, 세무지도담당, 체육진흥담당, 2014동계유치위원회행사팀장, 국제스포츠위원회 운영담당, 구제역환경관리과장, 기획행정전문위원, 자치정책과장, 균형발전과장 등을 역임. 가족은 부인 김운순씨와 1남1녀.

프로필

김만기 도 총무행정관

김만기(53) 총무행정관은 “강원도정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주요 현안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국장은 정선출신으로



강원고를 졸업했으며 레고랜드 추진단장,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관광마케팅과장, 2018 평창동계유치위원회 청산부장·미디어부장 등을 지냈다. 백오인

김보현 도 기획관

김보현(58) 기획관은 “산적해 있는 도정현안 해결을 위한 논리를 개발하고, 강원도만의 차별성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기획관은 영월 출신으로 영월공고를 졸업했으며,



도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 자치행정과장, 구제역환경관리과장, DMZ박물관장, 균형발전과장 등을 역임했다. 백오인 105in@kado.net

출향도민·경제인 지역발전 힘모은다

내일 하이원리조트서 강원사랑 3대 기획행사 고용대상 시상식·경제특강·골프대회 등 다채

출향 도민과 함께하는 '2015 강원사랑 3대 기획행사'가 3~4일 정선 하이원 호텔에서 열린다.

강원도민일보와 강원도민회중앙회가 공동주관하고 강원랜드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제4회 강원고용대상 시상식'을 비롯해 강원도의 새로운 발전전략과 비전을 모색하는 '강원경제특강'과 '만찬간담회', 출향도민과 고향사랑의 지를 다지는 '제12회 금강배 강원사랑

골프대회'로 진행된다.

특히 메르스와 엔저하락, 중국발 쇼크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역고용과 지역사회 활력을 증진시킨 기업들을 위해 제정한 '제4회 강원고용대상 시상식'은 3일 오후 5시 하이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이날 시상식에서 대상을 차지한 원주 네오플랜(대표 박창수)에게는 상금 2000만원과 상패를, 우수상을 차지한



정선 우리주민(대표 김진복·폐광지역 부문)과 태백 강원복지회(대표 이계용·여성장애인 부문)는 상금 1000만원과 상패를, 장려상을 차지한 원주 굿플(대표 정처성·일반부문)과 홍천 산돌식품(대표 이호성·일반부문)에게는 상금 500만원과 상패가 각각 전달된다.

시상식 후에는 정재훈(사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이 '강원경제특강 및 만찬간담회'에서 특강을 한다. 정 원장은 '산업기술 발전을 위한 세

가지 키워드'를 주제로 △아이디어와 기술, 문화로 성장하다 △맛과 향에 색을 입히다 △Buying에서 Living으로, 사람에게 다가가다 △자동차 발달의 비하인드 히스토리 △인간과 기계, 현실과 가상,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산업 기술 발전을 위한 세가지 키워드(창조·융합·공동체) 등을 세션별로 설명한다.

이튿날인 5일에는 '제12회 금강배 강원사랑 골프대회'가 하이원 CC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강원도민회 및 출향시·군민회, 도내 18개 시·군 경제인 대표 등 총 34개 팀이 참가해 기량을 겨룬다. 안은복 rio@kado.net

올해 중심제 시범사업 중간평가 해보니...

낙찰률 지난해보다 떨어지고 공사수행능력 만점업체 증가

입찰참가업체도 크게 늘어

올해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의 결과 물이 서서히 문곽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건의 시범 사업을 완료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현재 입찰을 진행 중인 가운데 작년어 비해 낙찰률은 다소 하락하고 입찰참가업체와 공사수행능력 만점업체 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1일 기획재정부와 발주기관 등에 따르면 올해 LH가 집행한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4건의 평균 낙찰률은 예가 대비 77.48%로 전년(80.28%)보다 2.8%포인트 떨어졌다.

▶관련기사 3면

기재부는 올해 시범사업에 앞서 입찰금액 심사기준을 다양화했다.

입찰가격 만점 구간을 균형가격의 97%에서 99%로 조정하는 A-1 기준과 균형가격을 꼭지점으로 감점하는 A-2 기준, 단가심사를 폐지하는 B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 중 LH 시범사업에는 A-1 기준이 2건, A-2와 B 기준이 각각 1건씩 적용된 가운데 입찰가격 만점 구간과 단가심사 감점 범위 조정이 낙찰률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낙찰률 하락과 함께 입찰참가업체와

공사수행능력 만점업체 수가 지난해보다 다소 늘어난 것도 올해 시범사업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다.

LH 시범사업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 기준으로 입찰참가업체 수는 30여개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하면 올 들어 입찰참여업체 수는 최대 20개 정도 증가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시범사업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마감 결과, 대표사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공동수급체 구성원까지 더하면 6배가량 입찰참여업체 수가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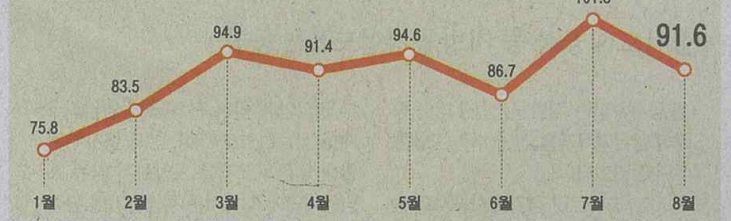
시공실적 평가방법을 종전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해 합산하던 방식에서 구성원의 실적을 100%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공동수급업체와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평가에 신규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10여개 정도에 머물렀던 LH 시범사업의 공사수행능력 만점업체 수도 공동수급체 참여에 대한 평가 등에 따라 15개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재부가 올해 시범사업의 입찰금액 심사기준을 조정하고 수주독점 방지방안 등을 적용하면서 작년과는 다소 결과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2015년 건설경기 BSI추이



상승세 타던 건설 체감경기 '주춤'

올해 들어 대체로 상승곡선을 그리던 건설기업 체감경기가 지난달 주춤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혹서기 계절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데다 신규수주에 대한 체감온도는 상승세를 지키고 있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홍수)은 8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전달보다 9.7p 하락한 91.6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 건설경기를 비판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100을 넘으면 그 반대다.

올해 들어 CBSI는 주택경기 회복에 힘입어 대체로 상승 추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 7월에는 13년 7개월 만에 기준선을 웃돈 101.3을 찍었다. 13년 7개월 만에 건설경기가 전달보다 나아졌다고 응답한 기업이 더 많았던 것이다.

8월에는 90대로 후퇴했지만, 크게 악화된 것은 아니라고 건산연은 평가했다. 혹서기 진입이라는 계절적 요인과 전달 큰 폭의 상승에 대한 통계적 반락을 주요 원인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홍일 건산연 연구위원은 "본격적인 혹서기 진입에 따른 계절적 요인과 전월 CBSI가 크게 상승(14.6p)한 데 따른 통계적 반락 효과가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8월 CBSI가 전월보다 하락했지만, 지수 자체는 90선을 유지

해 양호한 편"이라면서 "계절적 요인과 통계적 반락 효과로 건설기업 체감경기가 다소 조정됐지만, 13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CBSI가 기준선을 웃돈 7월에 비해 건설기업 체감경기가 크게 악화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대형건설사의 CBSI가 17.3p나 떨어지면서 전체 CBSI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대형사 CBSI는 여전히 기준선보다 높은 101.7을 기록했다. 지수가 하락했지만 전달보다 경기가 좋아졌다고 응답한 기업이 더 많아 체감경기가 나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8월 CBSI 91.6... 전월보다 9.7p '↓'
신규 공사지수는 상승곡선 지속

중견업체는 전월보다 2.8p 하락한 91.9를, 중소기업은 8.4p 떨어진 72.5를 기록했다.

신규 공사수주 지수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 6월에는 전월보다 11.6p 감소한 93.2였으나 7월에는 5.9p 상승한 99.1을 기록했다. 8월에는 다시 4.8p 상승해 103.9를 찍으면서 기준선을 넘어섰다.

건산연은 여름철 비수기에도 신규 수주가 전월보다 양호했고, 특히 주택건축공사 수주가 활발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신규 공사수주 지수는 주택 건축공사가 100.7, 비주택 건축공사가 85.1, 토목은 85.5를 기록했다.

한편, 9월 CBSI 전망치는 8월 실적치 대비 4.5p 높은 96.1을 기록했다. 통상 9월에는 계절적 요인으로 CBSI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고 건산연은 설명했다.

김정성기자 jskim@

중소사 '문턱' 낮췄지만... '가격평가' 검증 제대로 못해

NEWS &

을 중심제 시범사업 '절반의 성공'

올해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은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다. 일부 대형건설사의 수주 독점을 방지하고 중소건설사의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장치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입찰금액 심사기준 등 산적인 과제들이 적지 않아서다.

정부는 당초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에 대해 공사수행능력, 점수를 감점하는 내용의 시공여유율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정부가 나서서 공공공사 물량을 나눠준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시공여유율 대신 시공실적 심사기준을 변경해 중소건설사의 입찰참가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입찰금액 심사기준 다양화 불가 A-2, B 방식 적용 사업 1건 불과 "최선의 방법 찾을 셈플 늘려야"

시공실적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지원에 따라 계산하던 방식에서 단순 합산하는 방식으로 바뀌 시공비율이 낮은 중소건설사들도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지역업체를 포함할 경우 지역업체의 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그 결과 한국도지주력공사(LH)와 한국

철도시설공단의 시범사업에서 입찰참가 업체 수가 전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도로공사 등 입찰을 앞둔 다른 발주기관의 시범사업에서도 입찰참가업체 수가 다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공동도급 활성화 통해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이 늘었지만 입찰금액 심사기준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정부는 내년 종합심사낙찰제의 전면 시행에 앞서 올해 시범사업에 다양한 입찰금액 심사기준을 적용해 가격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그러나 입찰금액 심사기준 가운데 A-2와 B 기준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올해 시범사업 중 A-2와 B 기준을 적용한 시범사업은 각각 1건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A-1 기준과 동시에 발주되면서 차별화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는 실패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공사비를 자체 조달하는 발주기관들을 중심으로 B 기준을 꺼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B 기준은 단가심사 폐지에 따라 낙찰률이 상승할 수 있고 낙찰률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크게 떨어진다.

발주기관 입장에서는 공사비가 크게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한 발주기관 관계자는 "B 기준은 낙찰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데다 낙찰률 예측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공사수행능력이 좋지 않은 일부 건설사들이 가격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발주기관들이 A-2와 B 기준 등을 확대 적용해 최대한 많은 결과를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A-1, A-2, B 기준 등을 고루 적용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최선의 가격평가 방식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시장의 공통된 시각이다.

업체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진행된 시범사업으로는 A-2와 B 기준에 대한 검증이 미흡한 수준"이라며 "A-2나 B 기준을 확대 적용해 더 많은 샘플을 갖춰야 합리적인 가격평가 방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건설 연평균 4.8만곳 창업 3만9000여곳이 폐업했다

건설업이 매해 평균 3만9000여개가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창업 수는 매해 4만8000여개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4~2013년 개인사업자 창업·폐업'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자연영입 창업자 수는 949만개, 폐업자 수는 793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창업한 업체 6개 중 1개 정도만이 생존하는 수치다.

이 가운데 건설업은 같은 기간 48만6877개가 창업했고, 39만9614개가 폐업했다.

최근 5년간 창·폐업 수는 △2009년 4만8838개, 3만9157개 △2010년 5만2535개, 3만8833개 △2011년 5만3315개, 4만1406개 △2012년 5만1355개, 4만3295개 △2013년 4만9892개, 4만2236개 등으로 집계됐다.

건설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전기·가스·수도업은 같은 기간 7151개가 창업했고, 1671개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형용기자 je8day@

2015년 건설경기 BSI추이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 하도급뺐 하수급인·대리인 행위 책임져야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때는 건설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하며, 그에 따른 하수급인 및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조달청은 1일 하수급인 행위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확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시설공사 집행기준을 개정, 7일 이후 공고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기준은 공사계약특수조건과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으로, 각각 하수급인 등의 행위에 대한 책임부과 및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에 관한 조항이 신설됐다.

신설 조항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했다.

또 계약상대자가 이에 따라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공사 시공과 관련 하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대리인,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

조달청은 이와 함께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가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거나 하도급분부에 대한 계약쟁심미반영, 하도급불신고로 인해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지적받은 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의뢰한 것으로 보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하도급대금 및 근로자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이때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아울러 하도급계약을 나라장터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기로 확약한 경우에는 작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제출시기를 명확히 했다.

조달청은 일괄입찰공사의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의 규정이 신설됐으며,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한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계약공무원이 수시로 확인하고 미이행 시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봉승권기자

건설 전문기업 실적은 증가했는데 건설업계 성장·안정성은 악화 '왜?'

건협, 상반기 경영성과 분석 매출액 작년보다 5.9% 감소 조선 점영 기업, 부실 영향

올해 상반기 건설업계의 성장성과 안정성이 모두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성은 조선과 건설을 함께 하는 기업과 건설만 전문으로 하는 기업의 성적표가 엇갈렸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는 1일 2015년 상반기 기업공개 건설사(128개사) 경영성과 분석 결과를 조사·발표했다.

분석 결과 이들 기업의 부채비율과 유동비율 등 안정성 지표뿐 아니라 영업이익과 순이익 등 수익성 지표도 악화됐다. 먼저 기업공개 건설기업들은 상반기 매출액 감소로 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매출액은 64조2268억원으로 전년 동기(68조2634억원) 대비 5.9% 감소했다. 지난해까지 활황세였던 해외공사 매출에 대한 기저효과와 주택부문 물량 소진에 따른 것으로 협회는 분석했다.

특히 해외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상위

2015년 상반기 건설업 주요경영지표 (단위:%)

	2015년	2014년	증감 (전년동기)
건설매출액 증가율	1.4	-5.9	-7.3%p
유동비율	123.4	117.3	5.5%p
부채비율	163.8	170.3	3.5%p
매출액영업이익률 (건설전문업체)	0.7 (0.7)	-2.7 (1.9)	3.7 (1.2)%p

10위 이내 건설사는 10.2%,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기업이 많은 11~30위 건설사는 15.5% 매출이 줄었다. 반면 31위 이하 건설사들은 13.5% 증가했다.

수익성에서는 조선업을 겸업하는 건설기업과 건설업만 영위하는 건설기업 간에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전체 기업공개 건설사들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작년 7673억원에서 올해 -2조8994억원으로 손실 전환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률 역시 전년 동기보다 3.4%p 감소한 -2.7%를 기록했다.

세전순이익률도 지난해보다 2.9%p 감소한 -4.2%로 나타났다. 세전순이익은 작년 상반기 -1조4024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4조4318억원으로 적자폭이 커졌다.

협회는 그 이유로 조선업을 겸업하고 있는 일부 대기업의 경영 성적표 악화를 지목했다. 해운업 불황에 따른 발주량 축소와 저유가로 인한 해양플랜트 사업 부진으로 손실이 커졌다는 것이다.

반면 건설부문 매출 80% 이상인 건설전문기업만 떼어놓고 보면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전년 동기보다 1.2%p 증가한 1.9%로 실적이 개선됐다.

또한 건설전문업체는 차입금 상환에 따른 이자비용 감소로 이자보상비율이 지난해(40.5%)보다 161.7%p 증가한 202.2%로 상당 부분 나아졌다.

기업공개 건설사 전체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p 증가한 170.3%, 유동비율은 61%p 감소한 117.3%로 악화됐다.

협회 관계자는 "조선업의 해운업황 불황에 따른 발주량 축소, 저유가로 인한 해양플랜트 사업실적 부진에 대해 건설산업에서도 타산지석으로 삼아 저유가, 무효 및 연화 억제, 미국 금리인상 여부에 따른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성기자 jskim@